

SK케미칼, 고혈압 치료제 “두각”

<Norvasc> 대체해 제네릭제품 시장 공략 ... 2005년 400억원 목표

SK제약이 새롭게 선보이는 암로디핀 고혈압 치료제 스카드 <SKAD>가 6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아 8월 중 발매될 예정이어서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전망이다.

암로디핀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는 그동안 다국적 제약기업인 Pfizer가 <노바스크>로 국내시장을 독점하며 2003년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실현한 분야이다.

<노바스크>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은 국산 제네릭 고혈압 치료제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fizer와 SK제약, 한미약품의 치열한 3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.

SK제약은 2005년까지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.

SK제약은 과거 안센의 위장활동 개선제인 <프레팔시드>를 대체한 <레보프라이드>를 출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며 동제품 국내 1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바 있어 2번째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히트상품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한편, SK제약은 SK케미칼(대표 홍지호)이 지분의 100%를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대표적 생명과학기업으로 SK케미칼의 연구개발(R&D) 기능과 접목해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33%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SK제약은 관절염 소염진통치료제인 <트라스트 패치>와 은행잎 추출 혈액순환 개선제인 <기넥신>이 각각 200억원 이상의 매출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위장활동 개선제 <레포프라이드>, 위궤양 치료제 <오메드>, 관절염 치료제 <조인스> 등 매출 100억원 이상되는 상품 5가지를 보유하고 있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6/29>